
 국토교통부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배포일시	2021. 8. 10.(화) / 총 2매(본문1, 참고1)	
담당부서 상황총괄대응과	담당자	• 과장 이창훈, 사무관 황규오, 주무관 김재형 • ☎ (044) 201-4152, 4153, 4154	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## 3일간의 연휴로 택배 종사자 휴식보장 8월 14일 택배 쉬는 날 올해도 시행

- CJ대한통운 · 롯데글로벌로지스 · 한진 · 로젠, 우체국 동참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택배업계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‘택배 쉬는 날’\*(8월 14일)을 시행할 예정으로, 대체공휴일(8월 16일)까지 포함, 택배 종사자가 폭염 등 혹서기에 최대 3일간 휴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.

\* 작년 8월 13일 택배업계(CJ대한통운, 롯데글로벌로지스, 한진, 로젠)는 매년 8월 14일을 ‘택배 쉬는 날’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 발표

○ ‘택배 쉬는 날’은 주요 택배 4개사(CJ대한통운, 롯데글로벌로지스, 한진, 로젠)를 중심으로 시행되며,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(우체국 택배)도 ‘택배 쉬는 날’에 동참할 예정이다.

\* 나머지 택배사는 각 사의 사업특성에 맞게 현실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대응

□ 3일간의 휴일(8.14~16)로 인한 지연배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소비자와 화주들은 주문 및 발송 일정을 정할 때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.

□ 국토교통부 이창훈 상황총괄대응과장은 “향후에도 택배 종사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, ‘택배 쉬는 날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해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상황총괄대응과 황규오 사무관(☎ 044-201-415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국토교통부

# 8월 14일은 택배 없는 날

8월 14~16일  
휴가 갑니다!

택배기사님들의 건강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 
**‘택배 쉬는 날’을 시행합니다!**

3일간의 휴일로 인한 지연배송으로 다소 불편함이 발생하더라도  
**국민과 화주분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.**

\*주요 4개 택배사(CJ, 한진, 롯데, 로젠) 및 우체국 택배 등 참여